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03.76	↓ 코스닥	774.42
	(-5.90)		(-14.89)
↑ 금리 (미국 9년)	3.877	↑ 환율 (원-달러)	1325.10
	(+0.015)		(+8.30)



“주 52시간제’ 틀 유지… 필요 업종·직종만 유연화”

고용부 ‘주69시간’ 근로 설문조사 6030명 근로자·사업주 의견 반영

주52시간제 상당부분 정착됐으나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애로 겪어 연장근로 단위 ‘주’ 아닌 ‘월’ 지정

정부가 지난 2018년 이후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의 기본 골격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13일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최대 주 69시간제 등 근무시간 확대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정책 보완 및 사회적 논의를 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정 시기 연장근로를 요하는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유연화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근로시간 관련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날 여론을 반영한 제도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총 6030명의 근로자, 사업주와 국민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게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와 관련해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주당 69시간

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사회적 저항에 맞닥뜨렸고, 정책 재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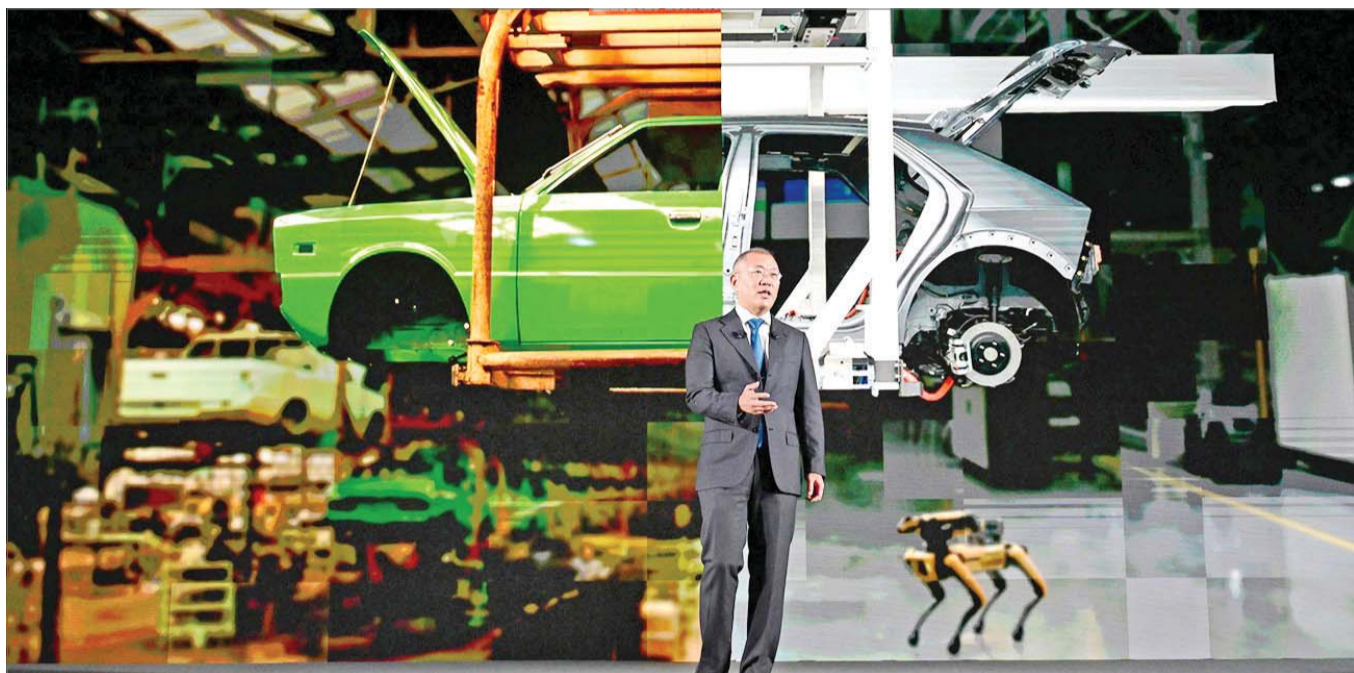
정부는 이날 현행 틀은 유지하되,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법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원하는 업종·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연장근로 단위를 ‘주’가 아닌 ‘월’로 정하면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일감이 몰린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당 설문조사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으나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당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 비중이 더 컸다. 근로자가 43.0%, 사업주 47.5%, 국민



현대차는 13일 울산공장 내 전기차(EV) 신공장 부지에서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54.4% 등이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응답자들은 ‘제조업’을 꼽았다. 또 직종으로는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고르게 한 설문에서는 근로자(75.3%)와 사업주(74.7%) 모두 4명 중 3명이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주 64시간 초과 답변은 근로자 14.1%, 사업주 12.9%에 그쳤다.

/세종=김연애 기자 kys@metroseoul.co.kr

정의선, ‘전동화 시대’ 100년 기업 향한 새 도전

울산공장 ‘전기차 허브’ 탈바꿈

현대차 울산 EV전용공장 기공식

연간 20만대 양산 규모 국내 신공장 안전·편의 최우선 미래형 공장 운영

“울산 EV전용공장은 앞으로 50년 전동화 시대를 향한 또다른 시작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13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개최된 EV전용공장 기공식에서 29년만에 신공장을 건설하는 의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1968년 가동을 시작해 올해로 56년째를 맞는다. <관련기사 4면>

현대차는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산실로 꼽힌다. 반세기 전 외국에서 가져온 자동차를 조립하던 공장에서 자체 기술만으로 차를 생산하는, 단일 규모 세계 최대 완성차 공장으로서 거듭났다. 정의선은 이날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인 현대차 울산공장이 반세기 전 원대한 꿈을 이어받아 전동화 시대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음을 알렸다.

현대차는 56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헤리티지와 자동차 사업 노하우 및 기술 역량을 적극 계승하며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전동화 시대에도 인류를 위한 혁신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 장재훈 사장과 이동석 국내생산 담당 부사장 등 경영진과 김두겸 울산광역시시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재익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의선 회장은 “울산 EV 전용공장은

앞으로 50년, 전동화 시대를 향한 또 다른 시작”이라며 “이 자리에서 100년 기업에 대한 꿈을 나누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정의선은 이어 “과거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는 꿈이 오늘날 울산 자동차 공업 도시로 만든 것처럼, 현대차의 EV 전용공장을 시작으로 울산이 전동화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 모빌리티 도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울산 EV 전용공장은 현대차의 국내 신공장으로 54만 8000㎡(약 16만6000평) 부지에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다. 약 2조 원을 신규 투자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 2025년 완공 예정이다. 2026년 1분기부터 제네시스 초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신설 공장에서 처음 생산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울산 EV 전용공장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에서 실증 개발한 제조 혁신 플랫폼을 적용해 근로자 안전과 편의, 효율적인 작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미래형 공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HMGICS의 제조 혁신 플랫폼에는 ▲수요 중심의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제어 시스템 ▲탄소중립·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공법 ▲안전하고 효율적 작업이 가능한 인간 친화적 설비 등이 포함됐다.

<2면에 계속>

/울산=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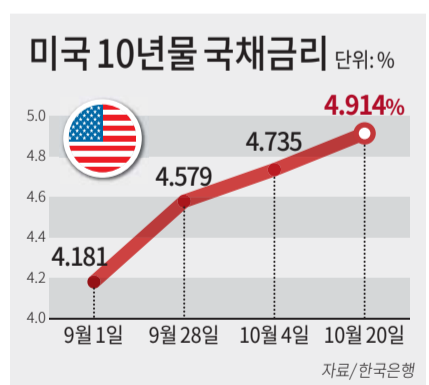


美 ‘셋다운’ 가능성… 주담대 금리 어찌나

국채금리 자극 4.914%까지 치솟아 은행채 등 금리 인상엔 대출금리 영향

미국의 미풍은 때론 우리나라에서 폭풍으로 변하기도 한다. 미국의 셋다운(Shutdown·연방정부 업무 일시정지)도 그렇다. 지난 10월 가까스로 주어진 45일간의 임시예산이 오는 17일 소진을 앞두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해 셋다운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커지면 국채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 영끌족들의 상환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셋다운을 막기 위한 추가 임시예산안



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의회는 지난 10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자 오는 17일까지 45일간 사용할 임시예산을 설정했다. 예산이 없어 연방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임시예산을 배정해 협상안을 내놓겠다는 의도다.

이번 추가 임시예산안은 중요도에

따라 2단계로 분류했다. 재향군인, 교통, 주택, 농업에너지 예산은 1월 19일까지, 국방,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의 예산은 2월 2일까지 사용분을 배정했다. 양당 견해차가 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은 빠졌다.

◆“임시예산안, 셋다운 해소야나”

전문가들은 실질 예산안이 통과하는 등 셋다운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미국의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앞서 미국의 국채금리는 10월 1일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여부 시점 전후로 급격히 올랐다. 9월 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181%에서 9월 말 4.608%로 0.427%포인트(p) 증가했다. 이후 10월 20일 금리는 4.914%까지 치솟았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비스타비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여야, 총선 앞두고 인재 영입 경쟁 본격화… “국민 눈높이 맞춰라”
-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 실시

- ▲ ‘청남대 규제완화’ 한목소리 충북도의회… 주차장엔 ‘시각차’
- ▲ 민주, 조국·추미애·송영길 리스크에 ‘곤혹’



- ▲ 통일부장관, 캐나다 대사 만나 강제북송 관심 당부
- ▲ 박진 외교장관 “한-하와이주 협력관계 강화 희망”